

중국, 희토류 일본수출 “재개”

금수조치 9월28일 해제 ... 어선 충돌사고로 빚어진 갈등이 원인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금수조치를 9월28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일본이 구속한 이후 희토류 수출통관을 중단했으나 28일부터 재개했다.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센카쿠에서 빚어진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 “대립의 움직임이 거의 끝났다”고 말해 관계회복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시사했다.

중국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상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희토류 통관수속이 21일 이후 중단됐으나 중국 세관당국이 28일 인터넷 등을 통해 통관수속을 접수하고 있어 이르면 29일부터 통관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으로 향하거나 일본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수출입품에 대한 중국세관의 검사 강화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장위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회견에서 관계회복을 향한 일본의 성실하고 실무적인 행동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강력하게 요구했던 일본의 사죄와 배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중국 정부의 강경 자세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29>